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50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u>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u>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u>성소를 위한 기도</u> ○ 종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13	이 마틸다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0	유 요한	이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27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성인복사
1/3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6	\$ 276.00	\$ 80.00	\$1,570.00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주소: <http://info.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정보에서 다양한 정보(매일미사, 성경, 기도서, 교리 등)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송 아네스' 자매님을 위한 기도

전 요아킴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송 아네스 자매님께서 지난 12 월 5 일 영면에 드셨습니다. 연도와 장례미사가 12 월 7 일(월)에 있었습니다. 송 아네스 자매님께서 주님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내 삶에 빛이 되어주셨던 교수님

박민서 신부 |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담당사제

30년 전쯤, 당시 일반대학교에서는 신체 장애인의 입학 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꼭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기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던 날, 저는 교수님들 앞에 수화통역자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의 입모양을 읽어보려 애썼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대답을 못 하자 이상히 여겼고 "혹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눌한 발음과 손짓으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임을 알려드리자, 그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일반 사람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 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기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면접시험을 치렀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전문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니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 동 체 소 식

공동체 평협 임원회의: 12/13 (주일) 주일미사 후

성탄공연: 12/18 (금)

전요아킴 신부님과 어린이 성가대의 성탄공연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12 월 18 일(금). 장소: 본당.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연을 많은 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대림일일 피정: 12/20 (주일) 오전 8시-오후 5시

강사: 가톨릭신문사 미주지사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님, 산클레멘테 본당 전홍식 요아킴 신부님.

문의: 김 헬레나 (661-350-0640). 박 니콜라스 (661-703-5957).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림피정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 한국 총영사관 '테러관련' 당부 말씀

프랑스 테러사건이후, 추가 테러가 있을거라는 우려속에, 미국 내에서 발생하리라는 보도속에,미국 당국도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께서는, 관련 동향과 뉴스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시고, 혹시 테러목표가 될수도 있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시에 특히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 385-9300

입학하던 날 학과장 교수님이 출석부를 보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박민서'라고 부르던 교 수님의 입 모양을 알아보고는 대답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손을 든 제가 이상한지 말을 걸어왔고 제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은듯했습니다. 합격시켜서는 안 될 학생이었는데 너무 늦었구나하는 마음을 교수님의 표정으로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민 끝에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없었기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쓴 노트를 보며 강의 내용을 옮겨 써야 했습니다. 우연히 그런 제 모습을 본 교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위한 강의록을 직접 써 오셨고,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주시곤 했습니다. 교수님의 섬세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교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사랑 으로 저를 도와 주시던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힘들고 어려 운 세상에 교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 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보에서>